

## <멋진 신세계> 속 '자유'와 '갈등'에 관한 고찰

자유 의 두 가지 측면—존재론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사이 상호보완성과

자유와 갈등의 불가분성을 중심으로

202221958 김다희

1. 서론
2. <멋진 신세계> 속 존재론적 자유
3. <멋진 신세계> 속 사회적 자유
4. 자유와 갈등의 불가분성
5. 결론

### 1. 서론

<멋진 신세계>는 1932년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발표한 디스토피아 dystopia 소설로,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행복, 인간 자유의 본질을 고찰한다. 극단적인 통제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욕망을 지닌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지, 자유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인간이 등장한 이래로 가장 많이 부르짖고 또 요구해 온, 인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멋진 신세계> 외에도 수많은 문학 작품에서 다루어졌고, 또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자유는 인간 존재와 직결되고,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시에 그것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라는 개념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자유인 존재론적 자유와 인간과 매우 밀접한 집단이자 시스템인 사회 속에서 구현되는 사회적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멋진 신세계>는 두 자유의 의미를 구분 지으며 구현해내면서도, 두 자유 중 하나라도 없으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두 자유의 상호보완성을 그려냈다.

작품의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갈등'이다. <멋진 신세계> 속 사회에서 갈등은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다. 작중 속 신세계는 갈등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갈등을 제거하면서 탄생한 사회이다. 계급 갈등, 전쟁, 불화 등 기존에 존재하던 다양한 갈등을 뿌리부터 제거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구축된 사회가 바로 신세계이다. 갈등은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갈등'이라는 의미에 '자유'가 전제되기도 하고, '자유'의 증명으로서 '갈등'이 제시되기도 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멋진 신세계>는 작품 전반에 걸쳐 이 관계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멋진 신세계>에 드러나는 자유를 장 폴 사르트르의 자유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존재론적 자유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유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자유의 본질과 특성, 두 자유의 상호보완성을 탐구하고, 자유와 갈등의 불가분 관계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멋진 신세계> 속 존재론적 자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 실존을 설명하면서 이미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규정하였다. 사르트르는 자유란 성취 대상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지닌, 인간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자유로 운명 지어진 것이다.'라고<sup>1</sup> 말하면서, 인간은 자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피투성의 존재로 그 존재가 어떤 목

---

<sup>1</sup> 박두희,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 나타난 인간과 자유의 존재론적 의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국문 초록 2~3쪽

적을 가지거나 그 목적이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았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다. 자유는 인간과 분리된 것이 아닌 인간 존재와 통합된 것으로<sup>2</sup>,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 책임으로 나타난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란 인간이 인간이기에 가지는 자유, 즉 존재론적 자유를 의미한다. 존재론적 자유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 압력에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은 존재론적 자유를 통해 자기 삶의 목적을 찾고, 자유롭게 개척해나간다. 그러나 <멋진 신세계> 속 신세계는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보카노프스키법'을 통해 해당 개인이 아닌 사회적 권력의 힘으로 정해진 목적에 따라 계급을 분배한다. 그리고 '조건반사 교육'과 '수면학습법'을 통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분배된 사회적 위치에 순응하게 만든다. 이는 사르트르가 주장한 존재론적 자유의 중요한 전제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에 어긋난다. 신세계는 존재론적 자유를 인간의 탄생 단계에서부터 억압하여, 인간이 제 생애과정 동안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행위를 막는다. 작품 속에서 존재론적 자유를 상징하는 '존'이라는 인물은 이러한 신세계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존은 구세계와 신세계를 직·간접적으로 모두 체험한 독특한 인물이다. 존은 신세계 여성 '린다'의 아들인 동시에 구세계에서 자란 인물로,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구세계의 문화를 몸소 경험함과 동시에 린다에게서 신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존은 신세계의 일반적인 생애과정에 벗어났다. 이 특성은 존이 신세계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능한다. 존은 구세계에 찾아온 버나드를 만나게 되고, 그를 따라 직접 신세계로 가게 된다. 신세계에 대한 동경과 기대로 부풀어 있던 존은 신세계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혐오와 경멸, 거부감과 저항심을 느끼게 된다.

"당신들은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다움과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릅니까?"<sup>3</sup>

---

<sup>2</sup> 윗글, 본문 4쪽

<sup>3</sup>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이덕형 역, 문예출판사, 2022, 325쪽

이는 소마를 배급받기 위해 병원 대기실을 가득 채운 똑같은 모습의 델타인들을 마주하고 경악한 존이 이내 정열과 분노를 느끼면서 그들을 향해 외치는 대사이다. 존이 생각하는 인간 다움은 자유로움이기예, 자유를 박탈당한 델타인들이 마치 노예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이후 존은 그들에게 배급될 예정이었던 소마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다. 존의 행위를 통해 타 인이나 외부에 있는 무언가의 의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행위 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의 기반이자 존재론적 자유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신세계의 통제와 억압에서 빚겨 난 존을 통해 존재론적 자유를 정면 에서 주창했다면, 존재론적 자유를 통제하는 신세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들을 통해서 는 통제하려 해도 통제되지 않는 존재론적 자유의 끈질긴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유롭다. 인간의 '자유'는 외부에 의하여 통제될 수 없고, 또한 통제하려 해도 완벽히 통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 본성적 자유, 즉 존재론적 자유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나 감정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존재론적 자유는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고,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게 한다. 역사 속 독재자 들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자유롭기 때문에 생겨나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 즉 인간의 본능을 통제하려 했고, 이는 그것과 맞닿은 존재론적 자유에 대한 통제에서 기인했다. 그러나 존재론 적 자유이자 그 증거인 인간의 본능—인간의 자유로운 생각과 감정—은 완벽히 통제되지 않는 다.

운전사는 문을 열었다. 오후의 태양이 발하는 훈훈한 광선이 그를 놀라게 했는지 눈을 깜빡였다. / “옥 상!”하고 운전사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는 어둡고 무서운 혼수상태로부터 갑자기 깨어나 기 빠하느 사람처럼 “옥상!”하고 외치고 있었다.<sup>4</sup>

---

<sup>4</sup> 윗글, 91쪽

“사실 나는 때로 그 사건을 꿈속에는 보는 적이 있어.” / (...) “천둥소리에 깨어났을 때 그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나무 사이를 헤매며 그녀를 찾는 꿈을 꿀 때가 있어.”<sup>5</sup>

위 장면은 극단적인 통제 사회 속에서도 통제되지 못한 인간 본성의 일면을 보여준다. 운전사는 광선, 즉 햇빛을 보고 환희를 느낀다. 이때, ‘환희’는 햇빛으로 대표되는 자연을 보고 느낀 ‘감정’으로, 꽃을 혐오하게 하는 ‘신 파블로프식 조건반사 양육 방식’을 채택하는 신세계의 통제 대상이다. 소장 또한 통제되지 않는 존재론적 자유를 보여준다. 소장은 함께 보호구역으로 갔다가 잃어버린 여자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 ‘죄책감’은 꿈으로 형상화되어 아직도 소장을 괴롭히고 있다. 소장이 느끼는 ‘죄책감’은 소마와 세뇌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씨앗을 제거하는 신세계의 억압대상이다. 주목할 점은, 운전사와 소장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세계가 통제하는 생애과정 속에서 전 생애를 보내는 인물인데도 인간 본성이자 존재론적 자유의 산물인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는 소마와 세뇌를 통해 인위적으로 유발된 행복이나 기쁨과는 결이 다르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못한 인간 본성적인 감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린다’ 또한 인간 본성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린다는 존을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신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구역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를 존에게 쏟아부었다. 그러나 존을 폭행하던 린다는 곧 태도를 바꾸어 “양팔로 그를 껴안고 수없는 키스를 퍼부었다.”<sup>6</sup> 또한 린다는 존을 버리고 혼자 신세계로 떠나지 않는다. 이는 세뇌된 초자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린다가 본능의 영역인 ‘모성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운전사와 소장이 느꼈던 ‘감정’과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자유의 산물이자 인간 본성에 속하는 ‘모성애’는 생물학적인 생식을 거부하고 ‘어머니’, ‘가족’, ‘임신’ 등의 개념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린 신세계의 제거 대상이다. 그러나 린다는 끊임없이 신세계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인물인데도, 신세계

---

<sup>5</sup> 윗글, 147쪽

<sup>6</sup> 윗글, 194쪽

의 이념과 맞지 않는 존의 존재에 대해 사랑을 느낀다. 이처럼 <멋진 신세계>는 극한의 통제 사회 속에서도 통제되지 않는 인간 본성, 즉 존재론적 자유의 산물을 여러 인물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존재론적 자유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3. <멋진 신세계> 속 사회적 자유

'사회적 자유'라는 개념을 정의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다. 밀은 그의 대표 저서 <자유론>에서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sup>7</sup>에 대해 다루었다. 밀은 책에서 사회적 자유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중 집중적으로 다룬 '사상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사회인 '신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사상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의 자유', 즉 '사상과 토론의 자유'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갈등할 자유'이다. '사상'과 '토론'은 모두 '갈등'이 전제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사상'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과 생각을 공유하며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사상'은 성립할 수 없다. '토론'도 마찬가지다. '토론'은 '갈등'을 공적 토론장에서 논의하는 행위로, '갈등'의 부재는 곧 '토론'의 부재로 이어진다. 즉, 밀이 강조하는 자유의 핵심적인 개념은 '갈등'이다.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sup>8</sup>를 의미한다. 이는 제 의견을 주장하고, 이해관계를 위해 노력할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유로운 구성원들로 구성된 사회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교차하기 때문에 갈등은 사회의 어느 영역에서나

---

<sup>7</sup>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박문재 역, 현대지성, 2018, 31쪽

<sup>8</sup> "갈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3. 06. 24)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유는 곧 '갈등'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은 신세계가 추구하는 '안정'과 명확히 대조된다. 그래서 신세계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를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조건반사 교육'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뉜 계급에 부여된 사회적 숙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교육이다.<sup>9</sup> 이 교육은 모든 계급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불만을 품는다면, 계급의식이 발생하고 그것을 공유하여 단합한 집단이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면학습법' 또한 사회적 계급에 대해 이견을 가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수면학습법'은 본인의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혐오하도록 하고, 높은 계급의 사람들을 선망하게 만든다. 이 방법은 본인의 계급을 그보다 낮은 계급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행복하다'라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그보다 높은 계급과 비교하면서 '똑똑하고 뛰어난 그들이 하는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라고 안심하게 한다. 이 두 방법은 계급 갈등을 근본부터 제거하기 위해 계급 간 구분을 철저히 하면서 자신의 계급에 불만을 품지 않고 만족하도록, 다른 계급이 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신세계라는 사회 구조의 기초적인 바탕이다. 즉, 신세계는 '안정'을 위해 '갈등'의 여지를 제거하는, 사회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이다.

신세계의 '검열 제도' 또한 사회적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무스타파 총통은 한 논문에 대해 "목적개념에 대한 필자의 수학적 검토는 참신하고 극히 독창적이지만 이단적이다. 현재의 사회질서에 관한 한 그것은 위험하고 해로운 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출판불허."<sup>10</sup>라고 평가한다. 더하여 그 논문을 쓴 필자를 감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sup>11</sup> 자유로운 사상의 공유 수단인 '출판'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검열하는 제도는 실제 역사에서도 수없이 이루어진, 독재를 위한 시도이다. 신세계 속 '검열 제도'는 신세계가 '사상과 토론의 자유'로 대표되는 사회

---

<sup>9</sup> 올더스 헉슬리, 앞글, 28쪽

<sup>10</sup> 앞글, 269쪽

<sup>11</sup> 앞글

적 자유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억압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 4. 자유와 갈등의 불가분성

<멋진 신세계> 속 신세계는 갈등을 제거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다. 신세계는 인간의 존재론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하고 통제한다. 존재론적 자유를 억압하는 목적은 그와 맞닿은 인간의 본성, 즉 자유로운 인간의 감정과 생각, 그로 인한 고통이나 내적 갈등을 막기 위함이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자기의 실존이나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고통과 내적 갈등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신세계는 이 일련의 과정이 존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부여하고 조성한다. '보카노프스키법'과 '조건반사 교육', '수면학습법'을 통해 실존과 삶의 방향을 고민할 수 없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계급과 목적을 부여하고, 본인의 사회적 위치에 만족하게 하여 계급주의 사회에 의구심을 품지 못하도록 한다. 인간의 고통과 내적 갈등은 소마를 통해 제거한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소마를 복용하도록 하여 내적 갈등의 원천을 차단한다. "불쾌감을 안겨주는 것이면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제거한다."<sup>12</sup> "인내도 저항도 하지 않고"<sup>13</sup> 고통과 마주하기를 포기한다. 인간의 본질이 자유로움이라고 믿는 존은 고통을 회피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진정한 인간다움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존은 자유롭도록 규정지어진, 존재론적 자유가 바로 존재 방식 그 자체인 인간은 그에 따른 고통과 고뇌, 내적 갈등을 인내하거나 그에 대해 맞서야 한다고 본다. 예외적 인물인 존뿐만 아니라, 신세계 내부 곳곳에서도 통제의 균열을 발견할 수 있다. 운전사, 소장의 꿈, 린다의 모성이 바로 그 균열이다. 철저한 통제 아래에 놓여있음에도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인간 존재와 자유에 따른 고통이 필연적인 인과 관계라고 믿

---

<sup>12</sup> 윗글, 365쪽

<sup>13</sup> 윗글



음을 가지고 신세계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존과 폭압적인 통제 속에서도 어떻게든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여러 인물의 모습에서 '존재론적 자유'와 '갈등'의 불가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자유를 억압하는 목적은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는 신세계의 사회 체제에 반대되는, 혹은 갈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통제 수단은 모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특히 '계급'을 정당화하는 '조건반사 교육'과 '수면학습법'은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여 사회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계급 갈등 및 반란을 미리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검열 제도'를 통해 '사상과 토론의 자유' 또한 통제한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 구조에 관한 논의의 가능성을 지우고 공적인 토론장을 통제하는 신세계의 사회 모습은 국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적 자유의 통제가 어떤 형태로 일상생활에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갈등의 제거를 위해 인간의 사회적 공론장을 통제하는 신세계의 모습에서 '사회적 자유'와 '갈등'의 불가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멋진 신세계>는 존재론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라는 자유의 두 가지 측면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회인 신세계를 통해, 또 그 신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통해 자유의 특성과 본질, 그리고 갈등과의 불가분성을 정면으로, 또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멋진 신세계>를 다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온갖 필연적인 고통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 개인의 자유로움과 자유롭게 갈등할 수 있는 공론장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작품 속에서 온갖 고통과 갈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그런 것들을 직면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거냐고 묻는 총통에게 존은 불행할 권리를, 그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답한다.<sup>14</sup> 또한 존은 타의에 의한 안락을 원치 않으며, 신과 시,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 그리고 죄를 원한다고 말한다.<sup>15</sup> 총통이 말하는 고통과 갈등에 대해 존은 무지하지 않고 오히려 잘 알고 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권리', 즉 '자유로울 권리'를 원하는 것이다. 이때 존이 말하는 '자유'란 존재론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고통과 갈등은 존재론적 자유의 산물이며, 그 고통과 갈등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공론장에서야 비로소 의미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고통과 갈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공론장은 자유로운 개인이 전제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자유라도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돼버리고 만다.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란, 상호보완적인 존재론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가 모두 보장되는 상태이다. 개인의 내적 갈등과 개인과 사회 간의 외적 갈등을 포함하여, '갈등'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갈등하는 개인 또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그 상태에 대한 필요조건이다. "떠밀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어디로 가려는 겁니까?"<sup>16</sup> 신세계의 모순을 깨닫고 자유를 주창하기 위해 걸어가던 존에게 건네지는 이 물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며,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멋진 신세계> 속에 드러나는 '자유'의 본질과 '갈등'과의 불가분성, 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진정한 자유의 필요조건은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 나가기 위한 실마리라고 결론내렸다.

---

<sup>14</sup> 윗글, 368쪽

<sup>15</sup> 윗글

<sup>16</sup> 윗글, 318쪽

## 참고문헌

"갈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박두희,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 나타난 인간과 자유의 존재론적 의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이덕형 역, 문예출판사, 2022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박문재 역, 현대지성, 2018